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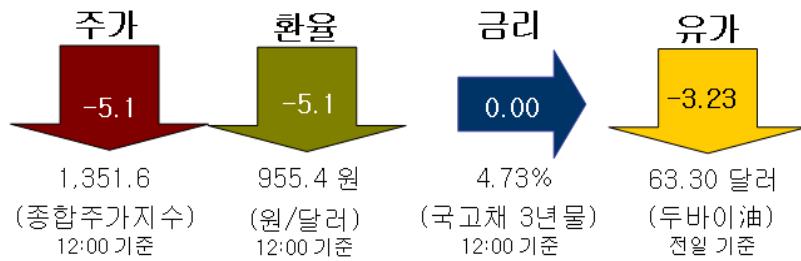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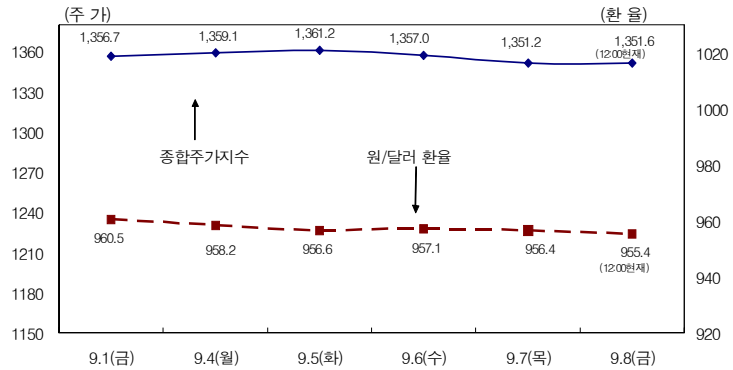


■ 풍요로운 복지, 작은 정부

-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9.8)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풍요로운 복지, 작은 정부
 -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1
- 주간 경제 동향 10
 - 실물 부문 : 수출 호조 속 무역수지 흑자폭 미약 10
 - 금융 부문 : 금통위 콜금리 동결로 금리 보험세 시현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동북아분석팀 :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 실물 분석팀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 금융 분석팀 :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Executive Summary

□ 풍요로운 복지, 작은 정부 -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국가의 미래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세계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였다. 우선 비전 2030 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비전의 3가지 목표상으로 ①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등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①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 건설, ② 건강 수명 80세, ③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공(公)과 작은 정부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양국의 '비전 2030'의 내용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부문이라고 판단되는 비전의 목표, 성장 전략, 경제 구조 변화, 복지, 재정, 교육 측면을 비교해 보면 양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목표에 있어 한국은 '양적 선진국'을 일본은 '질적 선진국'을 추구하고 있다.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지향점에 있어 한국이 경제 지표나 국가 순위 등 양적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일본은 문화 창출력, 세계 지식 개발 거점 등 양적 목표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 차원 높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경제 성장 전략에 있어 한국은 '투입 의존형', 일본은 '효율성 제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 산업들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시장 경제 원리 확대, 이노베이션 확산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형 성장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경제 구조 변화에 있어 한국은 '무역 의존형'을 일본은 '투자 입국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2030년 비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과 FTA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일본은 무역의 이익을 줄이고, 글로벌 투자를 확대시키는 투자 입국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복지 측면에서 한국은 '시혜적 복지'를 일본은 '자립 지원형 복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시혜적 복지' 정책의 비중이 높으나, 일본은 평생 학습 등을 통하여 국민들을 자립하게 하는 '자립 지원형 복지' 정책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재정 측면에서는 한국은 '큰 정부'를 일본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 정책 비중 증가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필수불가결한 부문을 제외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일본은 풍요로운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나,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에서는 한국은 '공급자 중심', 일본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 제도 개편과 고용 구조 개혁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에 역점을 둔 반면, 일본은 수요자 편에서 다양한 선택과 재교육 기회 확보, 국제화를 염두에 둔 외국어 학습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 전략의 차이는 많은 부분 양국의 경제 발전 단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1세기가 개방성, 효율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의 비전은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다. 우선 발전 목표를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21세기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은 정부, 민간의 활력 최대한 활용,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상이라는 측면을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반영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비전 2030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풍요로운 복지, 작은 정부 -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

한일의 비전 2030 작성 배경

- 대외적 배경
 - 세계화 심화, 국제 분업 및 경제 통합의 진전
- 대내적 배경
 - 저출산 · 고령화, 성장 잠재력 저하와 저성장세 지속
 -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 심화

비전 2030 체계의 한일 비교

	한 국	일 본
모토	함께 하는 희망 한국	새로운 약동의 시대
목표	-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 안전하고 기회 보장되는 사회 -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 건강 수명 80세 - 민간 주도의 중요 公, 작은 정부
추진전략	- 성장 동력 확충 - 인적 자원 고도화 - 사회복지 선진화 - 사회적 자본 확충 - 능동적 세계화	-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형성 - 글로벌화의 적극 활용 - 국민이 원하는 공적 수요 제공 체제 구축

비전 2030 주요 부문별 한일 비교 평가

목 표	- 한국: 정량적 목표를 강조 - 일본: 질적 성과를 강조
경제 성장 전략	- 한국: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 - 일본: 효율성 제고형 성장 전략
경제 구조 변화	- 한국: 무역 의존형 구조 - 일본: 투자 입국형 구조
복 지	- 한국: 시혜적 복지 정책 - 일본: 자립 지원형 복지 정책
재 정	- 한국: 큰 정부 지향 - 일본: 작은 정부 지향
교 육	- 한국: 공급자 중심 - 일본: 수요자 중심

시사점

- 효율성이 중시되는 21세기 세계화, 지식 사회에서는 일본의 작은 정부 추구, 민간 주도 경제 지향, 수요 중심의 교육 정책 방향 등은 한국도 고려해야 할 부분

□ 풍요로운 복지, 작은 정부 -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1. 비전 구상의 배경과 비교 대상¹⁾

○ (배경) 한일 양국 모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장기 비전을 수립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세계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비전을 마련

- 대내적 : 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성장 잠재력 저하와 저성장세가 지속됨

· 특히 한일 양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외적 : 세계화의 심화로 국제 분업 및 경제 통합의 진전, 각종 리스크 요인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과 문화 매력 시대의 도래로 지적 가치 중시 사회화가 심화되고 있음

○ (비교 대상) 양국의 '비전 2030'의 내용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부문이라고 판단되는 목표, 성장 전략, 경제 구조 변화, 복지, 재정, 교육 측면을 비교해 봄

- 양국이 모두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 강조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봄

- 단 양국의 차이는 성장 단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국간 차이를 좋고 나쁨의 차이로 볼 수는 없음

< 한일의 비전 2030 작성 배경 >

대외적	- 세계화 심화, 국제 분업 및 경제 통합의 진전
대내적	-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저하와 저성장세 지속 -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 심화

1) 참여정부의 『비전 2030 : 함께 하는 희망 한국』 보고서를 일본이 지난 2005년 4월에 발간한 『日本21世紀ビジョン 2030 : 新しい躍動の時代』 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데 감안해야 될 시사점을 도출해 봄

2. 비전 2030 체계의 한일 비교

- 한국은 비전의 3가지 목표상으로 ①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제시
 - 성장 동력 확충과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 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5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 부문의 총 50대 핵심 과제를 선정
 - 특히, 종전의 성장 위주 정책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제고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였음
- 일본은 ①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 건설, ② 건강 수명 80세, ③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공(公)과 작은 정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 건설은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과 세계의 가교 국가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건강 수명 80세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노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비정부 부문에 의한 공공 기능 확대, 자립적인 분권 사회 구축,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공공 사회 구현을 강조
 - 또한 세부 추진 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① 구조 개혁의 비약적 추진 ② 구조 진화로의 발전 ③ 차세대로의 부담 전가 회피 및 연계 강화를 선정

< 비전 2030 체계도의 한일 비교 >

	한 국	일 본
모토	함께 하는 희망 한국	새로운 약동의 시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인력으로 성장 동력 확충 · 선진 지식과 기술로 신성장 동력 창출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쟁력 제고 - 안전하고 기회 보장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삶 보장 ·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정착 · '더불어 잘사는' 사회 -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과 대립의 합리적 해결 · 모든 분야에서 각 국을 선도 · 국제 위상에 걸맞은 책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능력 제고 · 지적 기반 확립, 이노베이션 확산 · 財·人·資本의 원활한 교류 확보 · 지구적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 안정적 국제 관계 구축 · 효과적인 대외 전략 수립 정비 - 건강 수명 8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활달한 생활 실현 · 개인의 다양한 선택 지원 · 안심과 안전 확립 : 치안 회복 · 지역 사회 재생 -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삶, 작은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 주권의 확립 · 금융 산업 발전 · 법 의식 고양 및 법 실효성 제고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동력 확충 - 인적 자원 고도화 - 사회복지 선진화 - 사회적 자본 확충 - 능동적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형성 - 글로벌화의 적극 활용 - 국민이 원하는 공적 수요 제공 체제 구축

주 : 목표 부문에서 일본의 세부 내용은 추진 전략의 부문별 세부 정책임

3. 주요 부문별 한일간 비교 평가

① 목표 : 양적 선진국 對 질적 선진국

-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지향점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 지표나 국가 순위 등 양적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일본은 문화 창출력, 세계 지식 개발 거점 등 한 차원 높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함
- (韓 : 정량적 목표를 강조) 한국의 3대 목표중 첫 번째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를 들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1인당 GDP의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0년 2만 달러 달성 : 정부가 제시한 1인당 GDP 수준 (2005년 불변 가격 기준)은 2005년 약 1만 6,000 달러에서 2010년에 2만 3,000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제시함
 - 이후 2020년 3만 7,000달러, 2030년에는 4만 9,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 : 특히 국가경쟁력 (IMD 기준)을 2005년 현재 29위에서 2030년 10위, 같은 기간 삶의 질 수준을 41위에서 10위로 제시함
- (日: 질적 성과를 중시) 일본은 2030년 일본상의 첫 번째 목표로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를 들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 창조, 지적 능력 향상 등 질적인 목표를 추구함
 - 문화적이고 창조적 국가상 제시 : 일본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매력이 세계에서 인정되는 ‘Japan Cool (멋있는 일본)’, ‘文化列島’ 를 목표로 함
 - 이노베이션과 세계 표준 창출 주도 : 경제 규모, 삶의 질 등의 세계 순위에 구애 받지 않고, 지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개발·생산·관리에 주력하여, 일본이 세계의 지적 개발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

② 경제 성장 전략 : 투입 의존형 對 효율성 제고형

- 한국은 특정 산업들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시장 경제 원리 확대, 이노베이션 확산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형' 성장 전략을 목표로 함
- (韓 :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 노동, 자본 투입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
 -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 성장 동력 확충의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자원 투입과 육성이 수반되는 산업 육성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
 - 한국 정부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체제 정비, 문화 산업 진흥 기반 구축,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투자 확대 등임
 - 선제적 투자를 중시 : 단기·소극적 재정 운용 정책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주도형 전략을 추구
- (日 : 효율성 제고형 성장 전략)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정책보다는 생산성-소득 확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이노베이션의 확산, 경쟁적 자원 배분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
 - 생산성-소득 확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인재 육성,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휴먼 캐피탈, R&D 등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함
 - 이노베이션의 확산 : 인재 육성,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휴먼 캐피탈, R&D 등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경쟁적 자원 배분 :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생산성 향상이나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공공 주도형 자원 배분 시스템'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쟁적 자원 배분 시스템'을 확립

③ 경제 구조 변화 : 무역 의존형 對 투자 입국형

○ 한국의 2030년 비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FTA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일본은 무역의 이익을 줄이고, 글로벌 투자를 확대시키는 '투자 입국형'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을 추구함

○ (韓 : 무역 의존형 구조) 구체적 목표 변수를 살펴 볼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제고, FTA 협상 체결국 수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30년에도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시장 점유율 제고 : 세계 일류 상품수 2001년 120개에서 2030년 2,000개로 증가, 차세대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05년 5%에서 2030년 15%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세계 일류 상품은 세계 시장 규모 5,000만 달러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 5 위 (10% 내외) 이내, 수출 규모 500만 달러 이상의 상품을 의미

- FTA 체결국 수 증대 : FTA 체결국 수는 2005년 2개국에서 2030년 총 5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日 : 투자 입국형 구조) 내수 부문의 비중 증가로 무역의 이익을 줄이고, 선진 경영 및 기술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를 확대시켜 투자 수익을 증대시키는 수출 입국에서 투자 입국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

- 무역 이익의 축소 : 내수 비중 증가에 따르는 수입 확대로 재화·서비스 수지 부문은 적자로 전환이 불가피함을 인정

- 투자 소득이 무역 적자를 상쇄 : 그러나 일본 기업의 선진 경영 방식,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증대시켜, 이에 따르는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의 흑자폭이 무역 적자를 상쇄시키는 전략을 추구

④ 복지 : 시혜적 복지 對 자립 지원형 복지

- 복지 부문에서는 한국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시혜적 복지' 정책의 비중이 높으나, 일본은 평생 학습 등을 통하여 국민들을 자립하게 하는 '자립 지원형 복지' 정책에 보다 더 역점을 둠
- (韓 : 시혜적 복지 정책) 정부의 역할 제고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시혜적 복지 정책 추진을 강조함
 - 정부의 비전 2030에는 비정규직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선, 영세 자영업자 대책, 보육 서비스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 대책 수립, 주거 복지 확충 등 시혜적 대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 (日 : 자립 지원형 복지 정책) 일본 정부는 극빈층에 대한 사회 보장 시스템은 유지하되,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고 민간의 경제 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립 지원형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함
 - 나이가 들어도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일이나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평생 현역 사회'의 바탕 위에서 활력이 넘치고 자립된 고령기를 보낼 수 있는 '고령화 극복 선진국'을 목표로 함
 - 평생 학습을 통해 법률, 금융, 과학,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전문 기능이나 지식을 가진 고령자의 자영업 연계 모델 확립, 고령자의 근로 의욕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킴

⑤ 재정 : 큰 정부 對 작은 정부

- 한국은 복지 정책 비중 증가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필수불가결한 부문을 제외하고 민간 부문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함
- (韓 : 큰 정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함
 - 정부는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 개선도 곤란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100조 원(국채 발행시 이자 부담액 포함 1,600조 원) 예상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미확정 상태
- (日 : 작은 정부) 일본은 비정부 부문에 의한 공공 부문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최소한의 민간 부문 개입과 재정 슬림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 현재의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지속되는 재정수지를 2010년대 초반 이후 흑자로 전환시킬 계획
 - 1 서비스 1 행정 기관 추진, 명확한 재정 운용 목표의 확립,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위한 금융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
 - 현재의 공공 서비스중 상당 부문을 민간 기업, NPO (Non-Profit Organization), 사회적 기업가 등 민간에 이양하여 급변하는 사회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부 재정수지의 건전화와 같은 효과를 기대

⑥ 교육 : 공급자 중심 對 수요자 중심

- 한국은 교육 제도 개편과 고용 구조 개혁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에 역점을 둔 반면, 일본은 수요자 편에서 다양한 선택과 재교육 기회 확보, 국제화를 염두에 둔 외국어 학습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韓: 공급자 중심) 지식 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육성이란 목표 하에,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 부문에 총 9개 핵심 과제를 선정
 - 제도 혁신 : 교육 개혁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부문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대학 평가 제도 혁신과 국립대 통폐합 및 특수 법인화, 정년 조정과 임금 피크제, 학제 개편 등
 - 선제적 투자 :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여성·고령자들의 적극적 고용, 해외 고급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 (日 : 수요자 중심) 탄력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 지방이나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분명한 세부 목표를 제시
 - 초·중등 교육 개혁 : 학력 배양을 위한 충분한 수업 시간 확보, 실천적 영어 학습 및 중국어나 일본어의 선택지 확대
 - 중등 교육 개혁 : 다양한 대학이나 전문직 대학원을 설치하여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 연계 추진을 통한 실천적인 교육 경험과 지식 교육으로 문화 창조나 이노베이션 기반인 전문직 기능에 대한 지식 교육의 바탕을 마련
 - 지적 기반 확립 및 이노베이션 확산 : 세계적인 지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창조입국', '知財立國', '세계 지적 개발 거점' 등을 추구

4. 요약 및 시사점

○ 한국의 비전 2030은 일본과 달리 양적 선진국,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 무역의존형 경제 구조, 시혜적 복지 정책 확대, 큰 정부, 공급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은 경제 전략의 차이는 많은 부분 양국의 경제 발전 단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효율성을 중시하는 21세기 세계화, 지식 경제 시대에서 일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에도 반영시켜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비전 2030의 한일간 주요 부문별 비교 평가 >

	한 국	일 본
목표	- 양적 선진국 · 정량적 목표 강조 : 1인당 GDP : 2030년 4.9만 달러	- 질적 선진국 · 질적 성과 중시 : 문화창조국가
성장 전략	-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 · 노동,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 패러다임 제시	- 효율성 제고형 성장 전략 · 생산성-소득 확대의 선순환구조 확립 · 경쟁적 자원 배분 시스템 확립
경제 구조 변화	- 무역 의존형 구조 · 시장 점유율 제고 · FTA 협상 체결국 수 증대	- 투자 입국형 구조 · 무역 이익의 축소 · 투자 소득으로 무역 적자 상쇄
복지	- 시혜적 복지 · 비정규직 대책,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 체계 개선, 보육 서비스 확대, 주거 복지 확충 등	- 자립 지원형 복지 · 평생 학습을 통해 기초 능력 배양 ·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재정	- 큰 정부 ·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 · 2030년까지 재원 1,110~1,600조 원	- 작은 정부 · 비정부 부문에 의한 공공부문 확대 · 최소한의 개입과 재정 슬림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 정부 지향
교육	- 공급자 중심 · 제도 혁신 · 선제적 투자	- 수요자 중심 · 탄력적 운용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이노베이션 확산

경제본부 (3669-4182, sjhong@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수출 호조 속, 무역수지 흑자폭 미약

○ 8월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약 277억 달러의 호조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이 23.1% 증가한 271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6억 달러에 그침

- 원자재 수입 급증이 수출 호조 상쇄, 무역수지 흑자폭 급감
- 외형상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 컴퓨터(-12.1%) 부문 등의 부진 지속, 對美 수출 감소세(-11.0%) 전환 등의 품목간, 지역간 수출 경기 양극화가 지속중임
 - 수입은 소비재(7.3%)와 자본재(3.2%) 부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17.5%, 전체 수입 비중 59.8%)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6월의 약 20억 달러에서 7월과 8월에 각각 6억 달러 내외로 크게 하락함

- 향후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국내 수출 경기 하강 예상
- 최근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 하강이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5.6	-0.5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3.0	4.2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7	7.3	-
	공급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7.9	12.0	18.7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10.9	4.4	-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2,345	-
		실업률(%)	3.7	3.7	3.7	3.6	3.5	3.9	3.4	3.4	3.4	-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19.9	22.0	18.2	23.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6	27	54	-11	7	9	-2	-	
	무역수지(억\$)	294	232	60	49	61	17	51	20	6	6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2.3	2.9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3.4	2.9	3.8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통위 콜금리 동결로 금리 보합세 시현

○ (해외 금융 시장) 美 금리, 수급 요인으로 큰 폭 상승

- 달러/유로는 최근 강세에 따른 이익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
- 금리: 최근 금리 하락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 출회와 평균보다 많은 9월 신규발행 채권물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승(美 국채 10년물 : 4.72 → 4.79%)
 - 환율: 달러/유로는 최근 강세에 따른 이익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한 반면, 엔/달러는 일본 경제 지표 호조로 BOJ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소폭 하락 (\$/€ : 1.2836 → 1.2729, ¥/\$: 117.09 → 116.43)

○ (국내 금융 시장)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로 금리 보합 시현

- 외국인 주식 순매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 주가: 국제 유가 하향 안정세, 미 증시 등 글로벌 증시의 강세 등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금융상품 판매 실적 부진 등으로 주가 소폭 하락 (1,356.7 → 1,351.6)
 - 금리: 주초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에 따라 보합 시현 (국고채 3년 수익률, 4.73 → 4.73%)
 - 환율: 수입업체의 결제수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960.5 → 955.4)

○ (전망) 금통위 콜금리 동결로 금리 보합세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9.1	9.8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56.7	1,351.6
	국고채3년(%)	3.28	4.02	4.60	5.08	4.93	4.92	4.73	4.73
	원/달러	1,035.1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60.5	955.4
해외	DOW	10,783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464	11,331
	Nikkei	11,489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34	16,012
	미국채10년(%)	4.22	3.91	4.32	4.39	4.85	5.14	4.72	4.79
	일본채10년(%)	1.44	1.17	1.48	1.48	1.78	1.93	1.65	1.71
	달러/유로	1.3556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836	1.2729
	엔/달러	102.56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7.09	116.43
두바이(\$/바렐)	33.11	52.09	56.32	53.19	59.16	67.17	66.53	63.30	

주 : 국내지표는 9월 8일 12시 기준이고 해외지표는 전일 기준임.